

김정남 암살의 동기와 김정은 공포정치의 이면

Online Series

2017. 03. 03. | CO 17-07

홍 민(북한연구실장)

지난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발생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의 충격적인 피살 사건이 일파만파 국제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아직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부검 결과 사인은 화학무기로 분류되는 신경 독성물질 ‘VX’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말레이시아 당국이 ‘VX’의 출처를 조사 중에 있지만, 암살 용의자 8명 가운데 4명은 북한의 국가보위성, 2명은 외무성 출신으로 밝혀져 사실상 북한이 조직적으로 주도한 테러사건으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북한은 “위험한 정치적 망동”이라며 북한 배후설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검거되거나 도주한 암살 용의자들, 암살 방법 및 동기 등을 종합하면 북한이 국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벌인 사건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암살 동기의 측면이다. 왜 하필 납득하기 힘든 시점에 높은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일찌감치 정권 핵심부로부터 밀려나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는 떠돌이 ‘백두혈통’을 조직적으로 암살해야만 했는가이다. 둘째, 암살을 통해 얻고자 했던 이익이나 효과이다. 물론 애초 암살 계획 자체가 북한 소행임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했겠지만, 무엇을 노리고 높은 리스크를 감내하며 암살을 감행했는가이다. 이 글에서는 김정은이 집권 이후 보였던 통치 행태를 통해 암살의 동기와 암살로 얻고자 했던 효과를 추론해 보고 이번 사건이 가져올 파급 영향에 대해 전망해 보고자 한다.

양날의 검 ‘백두혈통’과 통치 불안 심리

김정남 암살의 동기를 우선 김정은의 통치 심리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암살을 선택할 때는 김정남의 존재나 행태가 어떤 ‘위협’으로 느껴지거나 잠재적 위협이 될 것이라는 확고한 자기 믿음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일각의 분석처럼 김정남의 망명 또는 망명정부 수립과 관련해서 그를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제거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김정남이 김정은 정권에게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위협을 주었거나 줄 가능성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난 내용은 없다. 따라서 김정남에 대한 ‘위협’ 인식은 실질적이고 가시화된 어떤 행동에 대한 것이기보다는 매우 개인적인 심리적 불안감 차원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 입장에서 떠돌이 ‘백두혈통’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거슬렸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백두혈통은 세습의 정당성을 제공하지만, 한편으로 통치의 굴레가 될 수도 있다. 김정은에게는 김정일과 같이 본처의 적자라는 분명하게 공개된 혈통적·세습적 자신감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김정은은 자신의 어머니가 오사카 북송교포 출신이라는 것, 그리고 김일성이 자신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것으로 인해 ‘백두혈통’으로서의 열등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최고지도자 지위를 확보하는 것으로 해소되기 힘든 심리적인 환부일 수 있다. 김정은은 자신과 동일한 위상의 또 다른 백두혈통의 존재가 주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참기 힘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김정남이 실제 망명이나 반체제 의지를 가지고 있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백두혈통인 김정남의 ‘존재’ 자체를 김정은의 ‘백두혈통’ 독점을 결정적으로 방해하는 사안으로 보기 시작할 때, 김정은에게 김정남은 치명적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김정은의 이상화를 디자인하는 측근들이 충성경쟁 차원에서 김정은에게 암시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김정남을 위협적인 존재로 인지시키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백두혈통’은 김정은에게 정치적 지지기반이기도 하지만 심리적 불안감의 근원으로 작용하고 있을 수 있다. 김정남에 대한 암살은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정세의 불확실성과 관료사회의 동요 차단

둘째, 정세의 불확실성과 관료사회의 동요를 차단하는 정치적 제의(ritual) 차원에서 동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잇단 외교관 및 고위 관료 탈북으로 김정은이 느끼고

있는 통치 불안감은 생각보다 매우 컸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암살은 이미 탈북한 사람들과 권력엘리트들에 대한 일종의 경고 성격을 가질 수 있다. 김정은은 간부들에게 배신자는 반드시 처단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려고 했을 수 있으며, 권력엘리트들에게 정세에 흔들리지 않는 충성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일 수 있다. 장성택의 처형이 초기 권력 기반을 다지고 자신의 폭력성을 관료사회에 깊이 각인시키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이고 상징적인 희생이었다면, 김정은은 대외적 고립과 불확실한 정세에 동요할 수 있는 관료사회에 공포를 주입시키는 상징적 희생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북한 소행이라는 것을 단정지을 수 없는 교묘한 방법의 암살을 통해 권력엘리트들에게 은밀하지만 강력하게 경고하는 효과를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 드러나 뜻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권력엘리트들에게 주입하려던 충격과 공포의 효과는 일정 부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포정치와 파벌 간 긴장 해소의 차원

셋째, 통치 상에 직면한 문제를 돌파하는 수단으로 암살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지속된 당·정·군 엘리트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 숙청과 처형은 관료사회에 일정한 동요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김정은의 수족이 되어 공포정치를 집행했던 간부들과 권력조직으로 반감이 모아지면서 김정은 자신이 책임에 대한 부담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 올 해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이례적으로 ‘인민’을 화두로 통치의 인간적 소회를 피력했던 것은 관료사회의 동요와 어수선한 분위기를 반영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김정은의 암살에는 그런 권력기구와 파벌 간에 형성된 긴장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가령 얼마 전 국가보위상 김원홍의 해임과 부상들의 처형은 김정은의 절대적인 신임을 기반으로 공포정치 한가운데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여타 권력기구의 영역을 침범해 왔던 국가보위성에 대한 당 조직지도부의 반격으로 볼 수 있다.

국가보위성은 김정은 집권 이후 최고의 권부로 부상하면서 당 조직지도부 관할 업무를 일부 인수하는가 하면 일반범죄 수사권까지 행사하고 최고위층을 미행하는 조직을 운영하는 등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왔다. 특히 김원홍은 국가보위성 내 김정은의 특명을 수행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대내외적으로 은밀하게 처치 곤란한 인물을 제거하는 활동을 하는 등 공포정치의 핵심적 역할을 해 왔다. 반면 정찰총국은 통폐합을 거치며 남조선 공작부서를 제외하면 해외 공작 활동부서들은 상당부분 위축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국가보위성의 특세에 당 조직지도부는 체면을 구긴 상태에서 절치부심 제압의 기회를 노려왔을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의 공개활동 수행 횟수에서 2012년 김원홍은 41회였지만, 당 조직지도부의 조연준(15회), 김경옥(13회)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반면, 2016년에는 김원홍 수행 횟수는 4회로 대폭 준 반면, 당 조직지도부 조용원 부부장이 47회로 가장 많은 수행을 한 것도 그런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전개된 김원홍의 해임과 부상들의 처형, 국가보위성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작업은 당 조직지도부의 반격이 성공하여 국가보위성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원상 복구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국가보위성 요원들이 주축이 된 김정남 암살이 이루어진 시점은 당 조직지도부가 국가보위성을 제압하고 접수한 직후에 벌어졌다는 점이다. 결국 당 조직지도부의 기획과 김정은의 결정 아래 국가보위성이 김정남의 암살을 실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당 조직지도부이든 국가보위성이든 이미 이전에 만약을 대비하여 김정남 제거 계획을 수립하고 예의주시하고 있었을 가능성 있다. 다만 실제 실행 여부와 ‘타이밍’을 결정한 것은 당 조직지도부와 김정은 이외에는 불가능한 일이다. 김정은의 이상화를 디자인해 온 당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가 암살 기획과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정리하면, 김정은은 국가보위성의 월권과 공포정치가 가져온 관료사회의 긴장과 동요를 김원홍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 김정남의 암살은 내부 파벌 간 긴장과 세력 부침의 결과이자 당 조직지도부의 압도적 주도권 확보를 알리는 신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정은 통치 불안 심리와 폭력의 악순환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은 김정은의 통치 불안 심리와 공포정치의 메커니즘이 결합하면서 만들어낸 결과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김정은은 집권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통치능력에 대한 의심어린 시선과 불신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 김정은은 호전적인 핵·미사일 도발, 권력 엘리트들에 대한 공포정치, 전시적인 도시 건설 등을 통해 통치의 자신감과 통제력을 과시해 왔다. 지도자로서의 경륜 부족과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은 주변 대상에 대한 과도한 경계 심리 및 편집증적 적대감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심리는 지도자로서 대외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는, 소위 인정욕구가 충족되지 않을수록 비이성적이거나 과장된 통치 행태로 나타날 수 있다. 지도자의 불안 심리는 ‘공포정치’의 양태로 거대한 관료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다. 불안이 폭력을 낳는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속에서 권력 엘리트들은

지시나 명령 이상의 과잉된 충성을 통해 생존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공포정치로 인해 권력엘리트들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이金正은의 통치 불안 심리와 맞물리면 이해하기 힘든 상황을 낳을 수 있다. 가령 이번 암살의 ‘동기’와 ‘타이밍’은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어 보이지만, 이런 메커니즘 속에서 본다면 충분히 이해 가능한 부분이 있다. 공포의 강도를 세계 할수록 공포정치로부터 억압을 당한 이들로부터의 보복, 그리고 공포에 짓눌려 나왔을 ‘충성’에 대한 의심과 배신의 두려움 역시 커질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김정남의 존재를 위협적으로 인식하도록 부추기는 기제였을 가능성도 있다.

핵과 인권이 결합한 ‘북한 문제’의 폭발력

이번 사건은 꺾히려웠던 정적의 제거라는 일회적 이슈에 그칠 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응축되어 있던 북한체제의 온갖 부조리가 문제적으로 국제사회에 폭로되는 계기적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비난하는 미사일 도발 직후 이뤄진 살인, 타국 영토 안에서 감행한 국가 주도의 조직적 테러, 금지된 화학무기의 제조와 사용, 잔인한 방식의 생명권 유린 등이 한꺼번에 풀려나오는 사건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사건은 ‘북한 문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줄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핵·미사일 문제로만 표상되었던 ‘북한 문제’가 비인도적이고 범죄적인 인권 사안과 결합하면서 폭발력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KINU 2017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